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3년도 제17호

2023.04.29(토)

체육시민단체 연합 세미나 개최

**“30년 베테랑 지도자가 제자 대진표 바꿔”**

**“코치가 제자 대진표 바꿨다” 소년체전 승부조작 의혹**

김준희 중앙일보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특별인권조사단’**

**‘체육계 미투’ 다루는 인권위 스포츠조사단 해산 조치됐다**

곽진산 한겨레 기자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동호인 2만 1437명의 열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성료**

양형모 스포츠동아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 최고 등급**

김동찬 연합뉴스 기자

**장애인 체육**

**특수 수영장 있어도 장애 학생은 못 쓴다... 멀어진 수영선수의 꿈**

한소연 매일신문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2023 체육시민단체 연합 세미나

# 대한민국 스포츠 시스템의 혁신 : 농구협회 미래전략 디비전리그를 중심으로

- ◇ 사회  
정용철 | 서강대학교 교수
- ◇ 주제발표  
정재용 | KBS 뉴스 전문위원
- ◇ 자유토론

- 일시 : 2023.04.29(토) 오후 4시 ~
- 장소 : 서울교육대학교 전산관 1층 교육공학실
- 주최 : 문화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체육시민연대
- 주관 : 체육시민연대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가능합니다."

문의 : 02)2279-8999 / sports-cm@hanmailnet



# “코치가 제자 대진표 바꿨다” 소년체전 승부조작 의혹

## “30년 베테랑 지도자가 제자 대진표 바꿔”

스포츠 꿈나무를 발굴하는 전국소년체육대회(이하 소년체전)에 출전할 지역 대표를 뽑는 예선전에서 승부 조작 의혹이 제기돼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조작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코치는 30년 가까이 국가대표 등을 배출한 베테랑 지도자다.

25일 전북체육회·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북 지역 4개 초등학교와 1개 스포츠클럽 소속 배드민턴 선수와 학부모는 “지난 2월 13일 고창군립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소년체전 배드민턴 남자 초등부 전북 대표 2차 선발전'에서 승부 조작이 있었다”며 지난달 31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에 전북배드민턴협회 A 회장과 B 전무이사, 정읍 모 초등학교 C 코치를 신고했다. 이번 대회는 전북교육청이 주최하고, 전북배드민턴협회가 주관했다. 52회 소년체전은 오는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울산에서 열린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승부 조작 등은 금지 대상이고, 체육 지도자나 선수 관리 담당자 등은 체육계 인권 침해나 스포츠 비리를 알게 되면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전북배드민턴협회 측에 경기 진행 용지 등을 요청하고, 관련자를 조사하고 있다.

## 선수·학부모 “협회가 비리 덮어”

승부 조작 논란은 당시 선발전에 참여한 한 학생이 “C 코치가 지도하는 한 학생이 조 추첨 결과 1조에 뽑혔는데도 2조에 배정받아 경기를 뛰었다”고 부모에게 알리면서 불거졌다. 일부 학부모와 대회 관계자 등이 해당 학생 대진표가 바뀐 것을 알게 됐지만, 경기는 그대로 진행됐다.

신고한 이들은 C 코치를 비롯한 일부 학교 코치진이 선발전에서 특정 선수 3명을 뽑을 목적이었는데 3명 모두 1조로 배정되자 대진표를 조작해 3명 중 1명을 2조로 바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날 선발전은 1조 8명, 2조 9명이 개인전을 거쳐 최종 4명이 전북 대표로 뽑혔다. 그러나 추첨 결과와 다르게 조가 편성된 C 코치 제자는 탈락했다.

이에 선발전 이튿날 한 선수 부모가 B 전무이사를 통해 A 회장에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회장은 스포츠공정위를 열지 않고 외려 사건 무마를 종용했다는 게 신고한 선수·학부모 측 주장이다.

## 코치 “승부 조작 없었다”...협회 “맞다” 시인

이들은 “A 회장은 지난달 4일 전주에서 열린 도내 초·중·고 등 배드민턴 지도자 15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C 코치에게 공개 사과를 지시했지만, C 코치는 사건 경위는 밝히지 않은 채 '죄송하다'고만 했다”고 했다.

한 선수 부모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어른 욕심과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보는 건 아이들”이라며 “C 코치가 지도한 학생이 원래 조에 있었다면 대표로 선발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제일 큰 피해자”라고 했다.

이에 대해 C 코치는 “승부 조작은 없었다”며 “경기 진행 과정에도 문제가 없었고, 아무도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북배드민턴협회 측은 “C 코치가 1조라고 적힌 종이를 뽑은 학생에게 임의로 2조에서 뛰라고 한 것 자체가 승부 조작”이라고 했다.

## 회장 “진상 조사 착수...코치는 징계”

A 회장은 “당시 1조에 잘하는 선수가 많다 보니 C 코치 욕심에 학생에게 2조로 가라고 한 것 같다”며 “코치가 선수에게 어떤 조로 가라고 하든 경기 진행 요원이 선수가 준 쪽지(조 추첨 종이)를 확인해 대진표에 정확히 적어야 했는데, 역할을 못 했다”고 했다.

A 회장은 “협회도 조직적 담합이 있었는지 등을 밝히기 위해 선발전에 참가한 모든 지도자와 선수, 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상 조사에 착수하고 C 코치는 징계할 방침”이라고 했다.

전북체육회와 전북교육청도 뒤늦게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체육계 안팎에선 “승부 조작이 이번뿐이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성하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승부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와 함께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 ‘체육계 미투’ 다루는 인권위 스포츠조사단 해산 조치됐다

체육계 인권 침해 문제 대응을 위해 2019년 2월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특별인권조사단(스포츠특조단)’이 지난 3월 말 4년 만에 공식 업무를 종료하고 해산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스포츠특조단의 파견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 스포츠특조단은 각 부처 등에서 파견된 17명이 최근 복귀하고 인권위 정책교육국 소속 직원 1명만 남아 최소한의 업무만 수행 중이다. 인권위 누리집 조직도에 남아 있는 ‘스포츠특조단’에 직원 명단도 모두 사라졌다.

스포츠특조단은 지난 3월16일 기계체조 선수의 훈련체계 개선 등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을 마지막으로 공식 해산했다. 스포츠특조단은 지난 2019년 당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의 성폭력 등 체육계 과거 인권 침해 사건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구성됐다.

대한체육회 등 관련 기관이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한몫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2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직원을 파견해 인권 조사에 전문성이 있는 인권위 안에 스포츠특조단을 꾸렸다.

이후 스포츠특조단 직원들의 파견은 매해 연장됐지만, 정권이 교체된 뒤 올해부터 파견 연장 승인이 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원래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조직이었고, 업무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필요하면 인권위가 정규 업무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각 부처가 한곳에 모여 정책·조사·교육을 할 수 있는 특조단이 체육계 인권을 다루는 올바른 방식이었다고 봤는데 지금 정부에선 이를 상시 조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했다.

스포츠특조단은 출범 이후 엘리트 선수들을 비롯해 학생운동선수와 실업팀 선수의 인권실태도 조사해왔다. 지난 4년간 스포츠특조단 명의의 공식 보도자료만 40여건이 나왔다. 그러다 2020년 6월 철인3종 경기 최숙현 선수가 팀 내에서 가혹 행위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스포츠특조단이 앞서 진정을 받고 조사하던 와중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서 특조단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스포츠특조단이 해산됨에 따라 체육계 인권 침해 문제는 2020년 8월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가 전담할 전망이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운동가는 “체육계 인권 문제의 체질 개선이 되기도 전에 특조단이 사라져 앞으로 인권 조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정용철 서강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제대로 정착될 때까지만이라도 특조단이 유지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동호인 2만1437명의 열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성료

국내 생활체육 동호인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4월 30일 폐회식을 끝으로 4일간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와 경상북도가 공동 주최한 이번 대축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2019년 대회 이후 4년 만에 열리게 됐다. 40개 정식종목과 3개 시범종목 등 총 43개 종목에서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2만1437명이 열전을 벌였다. 6세 어린이부터 90세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으로 거듭났다.

28일 개회식에서는 '영광의 새 경북시대!'라는 주제 아래 대한민국 문화·관광의 중심지인 경북의 특색을 살리는 다양한 공연 및 행사가 펼쳐졌다.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등이 참석해 동호인들을 격려했다.

30일 오후 4시 구미복합스포츠센터에서 열린 폐회식은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 성적발표 및 종합시상, 대회기 이양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대축전은 결과와 순위와 관계없이 전국의 시·도 선수단이 생활체육을 통해 화합, 소통하고 건강과 행복을 고취하기 위한 축제인 만큼 질서상(3), 경기운영상(3), 특별상(3), 경기력상(1), 성취상(1), 최고령상(2)의 총 6개분야로 나누어 시상했다.

종합 성적 1위를 차지한 경기도가 경기력상을 수상했고, 전년대비 경기성적이 가장 우수한 인천광역시가 성취상을 받았다. 질서상은 충청북도(1위), 울산광역시(2위), 강원도(3위)가 차지했다. 경기운영상은 대한골프협회(1위), 대한스쿼시연맹(2위), 한국풋살연맹(3위)이 받았으며 특별상은 경상북도 선수단, 대한민국농구협회, 대한보디빌딩협회에 돌아갔다. 최고령상은 세종특별자치시 그라운드골프 대표 강태훈(90·남) 어르신과 전라북도 국학기공 대표 김판곤(90·여) 어르신이 차지했다.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대회기 이양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내년 대축전은 울산광역시에서 열린다.

# 국민체육진흥공단,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 최고 등급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2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평가는 2020년부터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노동자 처우개선 등 정책적 안착을 위해 추진된 제도다.

이번 평가는 시설관리, 미화·경비 등의 업무를 자회사에 위탁 중인 9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속적인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개최 등 자회사의 안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며 "이에 대한 결과로 자회사의 안정성 기반 마련 및 전문적 운영지원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 장애 학생은 못 쓴다... 멀어진 수영선수의 꿈

중증 자폐성 장애를 가진 특수학교 소속 수영 꿈나무가 정작 교내에 있는 특수 수영장은 사용하지 못해 좌절하고 있다. 일반 학생들의 수영 수업에 밀려 특수학교 학생에 대한 수영 수업은 뒷전이 됐기 때문이다. 사설 스포츠센터를 전전하며 실력을 키워온 수영 꿈나무가 이달 있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권을 따냈지만 대구시교육청과 학교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 ◆ "장애인 수영선수는 수영도 못하나요"

지난달 26일 오후 3시 월성동 한 아파트 내 스포츠센터 수영장. 초등학교 5학년 수영선수 황윤호(14·가명) 군은 센터를 찾는 회원들의 발길이 잠잠해지는 틈을 이용해 전국장애인체전에 나갈 연습을 한다. 달서구에 있는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공립 특수학교인 세명학교에 다니는 황 군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1급의 수영선수다.

물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부산스럽게 손을 휘졌던 황 군은 코치의 지시에 사뭇 진지해지더니 이내 물 위를 유영하기 시작했다. 그가 수영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안 황 군의 어머니 송아름(45·가명) 씨는 2018년부터 아들의 꿈을 살뜰히 챙겼다. 2019년 세명학교 진학을 결심한 이유도 세명학교 내 특수 수영장이 있기 때문이었다. 세명학교에는 25m 레인 6개 규모의 '어울림수영장'이 있다. 가족 탈의실이 있고 특수아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직원이 상주하고 있어 지적장애인이 안전하게 수영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

초등과정을 2년 유예한 황 군은 2019년 세명학교 1학년으로 입학했다. 하지만 입학하자마자 송 씨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다. 어울림수영장은 세명학교 소유가 아닌 대구시교육청 특수교육원 소유라 세명학교 학생이라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엮힌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교육청 소속 초등선수단 일부에게만 연습이 허용됐다.

황 군은 아쉬운 대로 대구에서 유일하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달구벌재활스포츠센터(달서구 용산동)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달구벌재활스포츠센터도 발달장애인을 고려한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이용하기가 녹록지 않았다. 어머니 송 씨는 "달구벌스포츠센터는 가족탈의실이 한 칸밖에 없어 탈의하고 씻길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공중화장실 장애인 칸에서 세숫대야로 씻기고 옷을 갈아입혔다"고 하소연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황 군은 같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자녀를 키우는 다른 학부모의 도움으로 2021년부터 월성동 사설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마저도 센터의 배려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센터장 A씨는 "장애인 체육에 대해 관심이 많아 회원이 없는 점심시간 대에 수영을 좋아하는 장애 아동에게 시설을 제공해주곤 했다"며 "윤호 군의 사정이 안타까워 면접을 본 후 아이의 장애 등급 등을 고려해 받아주게 됐다"고 말했다.

### ◆ "학교 이름 달고 출전하는데..."

5년 동안의 지난한 연습 끝에 황 군은 지난 3월 장애인 수영대회 전국체전 출전권을 따냈다. 세명학교 소속으로 전국체전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특수교육원은 장애를 가진 수영 유망주에 대한 지원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황 군을 위해 어머니 송 씨는 학교 측에 수영장을 쓰겠다고 요청했지만 이번에도 거절을 당했다.

송 씨는 "비장애아동 생존수영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라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특수교육원이 운영하는 시설이지만 장애를 가진 학생은 쓸 수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어울림수영장 사용 일정표에 따르면 이달과 다음달은 일반 학생들의 생존수영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황 군이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 수영장을 쓰려면 생존수영 프로그램이 없는 수요일만 이용할 수 있다. 수영 선수인 황 군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은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영 수업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지난 2019년 교육부가 초등학교 생존수영 매뉴얼을 발표했지만 장애 학생에 대해선 관심이 부족했다. 장애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사이 시교육청 소유의 수영장은 자연스럽게 일반 학생들 위주로 운영됐다.

추대업 대구시교육청 특수교육원 장학관은 "특수학교 학생에 대해선 교육부가 따로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며 "생존수영 의무 지침이 확대되면서 세명학교 주변 학교들도 세명학교 내 수영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동안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영장이 마땅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대구시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황 군을 위한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추 장학관은 "이달 중순에 있을 체전까지 2주가량은 수영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생존수영 수업이 끝나는 7월부터 장애학생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은성 대구시교육청 특수교육원 장학사는 "올해부터는 사설 수영장에서 생존수영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7월부터는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위주로 수영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주간 스포츠 소식

국민체육기금으로 지은 '의성컬링장 신관', 시설수준 낮아 활용도 낮고 공사비 과다 책정 의혹도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3050108090196649>

스포츠에 푹 빠진 카타르, 축구 이어 농구 월드컵 개최

<https://www.sedaily.com/NewsView/29OHPB53C3>

대전교육청, 운동부 육성 초·중·고 학교장 '청렴 연수'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428\\_0002284880&cID=10807&pID=10800](https://newsis.com/view/?id=NISX20230428_0002284880&cID=10807&pID=10800)

[인터뷰] 이병기 대한철인3종협회 회장

<http://www.ewe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8425>

'태권도 여제' 정재은, 독도사랑회 홍보대사 위촉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4270128>

전북체육회, 스포츠 인권강사 5인 위촉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426\\_0002281256&cID=10808&pID=10800](https://newsis.com/view/?id=NISX20230426_0002281256&cID=10808&pID=10800)

스포츠윤리센터, 생활체육인들과 함께 달렸다

<https://www.news1.kr/articles/5032308>

용인시, 대한체육회 직장운동부 운영비 공모서 3년 연속 선정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1030100061?input=1195m>

광주 초등학생 배드민턴 선수들 태운 승합차와 1톤 트럭 충돌...1명 사망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28417/?sc=Naver>



#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